

# 곡성군, '곤충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곡성군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곤충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요즘 식량의 개념은 배를 채우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먹거리의 고급화, 즉 양보다 질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식량을 대표하는 쌀, 밀가루 등의 생산물은 그저 단순한 의미의 식량이 아니라 인류 성장의 척도로 보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식량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식량의 무기화 등의 문제는 앞으로 더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미래 식량에 대한 심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타시군보다 먼저 선점 육성해야 할 품목이 '곤충산업'인 것이다.

곡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강원도 영월군과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연계사업인 '곡성·영월 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계 사업'에 선정되어 48억(국비 49억, 지방비 5억)을 지원 받았다. 영월군은 문화곤충 분야를, 곡성군은 산업곤충을 각각 맡아 곤충산업을 추진하여 산업화 기능 곤충자원 발굴과 개발을 통해 실용제품화, 곤충산업 관련 제품 판매, 곤충사육용가 육성

## 지난 3년간 강원도 영월군과 공동 곤충산업 추진

### 제품판매 · 농가 육성 등 시장개척 통해 소득증대

등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곡성은 멸종위기의 꼬마잠자리, 섬진강 천적곤충관, 섬진강변의 침실습지와 제철습지 등 최첨단의 자연생태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국내 곤충산업분야는 식·약용, 사료, 화학애원곤충, 천적, 화분매개, 곤충바이오분야가 있지만 그 어떤 분야도 아직까지 산업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과 홍보에도 곤충산업의 성장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로 이는 식용곤충의 혐오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점에서 식용곤충이 미래식량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산업화로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 허가된 식용곤충으로는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누에, 갈색거저리(고소애), 쌍벌귀뚜라미(쌍벌애), 흰잠박이 꽃무지 유충(꽃뱀이), 장수풍뎠이 유충(장수애) 등 7종 정도이다. 식용곤충은 혐오감과 더불어 가

격 코스트에서도 돼지고기 가격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도 경쟁력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식용곤충보다 삼겹살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단기적으로 곤충산업에서 식용 곤충의 걸림돌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료용 곤충산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식용곤충으로의 접근을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 곤충 전문가들은 사·약용 곤충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사료용 곤충이란 애완동물의 사료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사료용 곤충의 산업적 접근은 가축과 양식 어류에 한해 먼저 접근하고 향후 애완동물 사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축 및 양어사료는 사료용 곤충으로 애완동물 사료는 식용 곤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료 곤충의 숙제는 전지에서 얘기했듯이 대량생산과 가격 코스트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력은 단순 가격 코스트와 부여 대비 효과의 극대화에도 그의 미가 있다.

유근기 군수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곡성군을 곤충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육과권역에 곤충종 보급센터 및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국내 유일의 대규모 곤충산업 단지로 구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를 수행할 사업주체가 곡성군 육과면 소룡리에 위치한 (주)한국유용곤충연구소(대표 양영철)가 중심에 있다. 이 기업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본사를 2010년 이전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천적 곤충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와 시스템을 완성하여 사료용 곤충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사료용 곤충의 농가 계열화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하였다.

곡성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곤충산업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료 분야를 선점하고, 곤충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된 후 식용곤충 및 천적산업분야 등으로 확대해 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새콤달콤 강진 '레드향' 본격 수확

### 당도 높은 고급과일로 인기

점차 이열대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 강진군이 농업인 소득작물로 육성중인 레드향'을 본격 수확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3년부터 실증재배 시험을 통해 이열대 과수종 시장성이 우수한 애플망고와 레드향을 육성작물로 선정해 농가시범재배를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 묘목을 심은 농가들이 본격 수확하고 있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의 조합으로 만든 품종으로 수년전부터 고

급 과일로 인소문을 타고 있다.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강진에는 6농가에 2ha 면적에 재배중이며, 시설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 사이에 점차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식량도 가 많아 레드향의 맛이 좋은편"이라며 "2018년을 '농업소득증가의 원년'으로 선포한 군정방침에 발맞춰 농업인 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진=최재명 기자

## 나눔으로 녹이는 매서운 겨울한파

### 영암 이레영농조합법인 쌀 100포 후원

지역내 소외 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이레영농조합법인(회장 엄태철)에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3일에 400만원 상당 기부물품(쌀 20kg 100포대)을 영암군 삼호읍에 전달했다.

이번 실행은 경로당 50개소와 사회복지시설(광명원,소정원),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등 소외계층에 전달되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는 손길을 보였으며, 6년째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쳐 타의 귀감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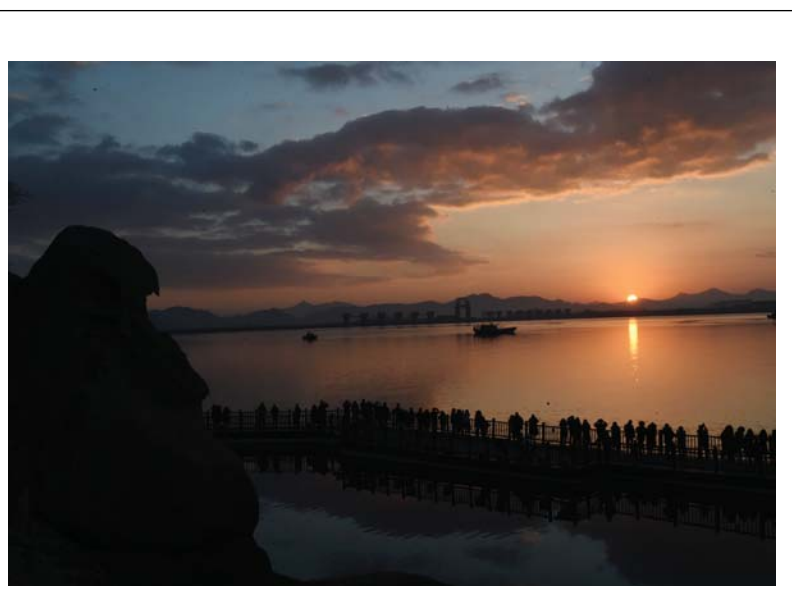
기부물품 전달식에서 엄태철 이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매서운 겨울한파에 평소보다 소외감을 느



낄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삼호읍 마인구 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웃사랑 나눔문화가 지역사회내 관심의 폭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은홍 기자



입암산 아래 갯바위서 본 일출

## 목포의 낭만, 해와 바다로 운치 더해

### 유달산 · 입암산 · 북항 노을공원 일출 · 일몰 감상에 훌륭

해와 바다가 목포의 낭만에 운치를 더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새벽 유달산과 입암산 등 목포 시내 산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 찾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서해와 남해를 모두 접하고 있는 목포는 일출(日出)과 일몰(日沒)이 항구도시의 서정을 더한다.

일출 감상지로는 유달산(228m)과 입암산(121m)이 인기다. 모두 시내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높이가 낮아 큰 힘이 들지 않고 가볍게 올라 자연이 연출해낸 장관을 감상하기에 훌륭하다. 산 자체도 매력적이지어서 기암괴석과 거대한 암석은 장구한 세월의 풍파를 느끼게 한다. 총 6.3km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둘레길은 기암괴석과 숲, 바다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의 힐링 코스다.

유달산은 내려오면 원도심과

목포항 인근의 맛집에서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유달산 자락 아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거주했고, 근대역사관 1?2관을 비롯해 그들이 남긴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직도 남아있어 색다른 볼거리도 감상할 수 있다.

입암산은 갯바위문화타운을 병풍처럼 품고 있는 산이다. 갯바위문화타운은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지박물관, 목포문학관, 문화예술회관, 남농기념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전시 관람시설이 밀집해 목포의 대표 관광지다.

낙조(落照)는 북항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일품이다. 다도해로 사라지는 태양의 모습은 바쁜 도시민에게 그림자며 여유를 선물한다. 북항 노을공원은 수변데크, 산책로,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낙조가 지어내는 황홀함에 빠질 수 있다.

## 곡성군, '지방빼go 근육늘리go' 호응

곡성군은 신체활동 감소와 음식의 풍족함으로 인해 복부비만이 심각해짐에 따라 BMI(체질량지수) 28kg/m<sup>2</sup>이상 되는 주민 4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기 지방빼go 근육늘리go 체중조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체중조절을 희망하는 주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식습관 변화와 신체활동의 저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환경·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비만에 초점을 두어 주 3회 3개월 과정 30회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체력평가와 체성분 측정 후 영양분야에는 식사일기 쓰기, 식사일지 분석상담, 식사구성 자전거울에 스티커 붙이기를 실시하고 운동분야는 신체 균형, 정선적 안정에 좋은 파워 요가 근력강화 운동댄스, 자세교정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밸런스워킹 PT체조, 장미공원·체육공원 숲길걷기, 한방비만클리닉 등으로 진행했다.

김영락 보건의료원장은 "참가자 모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